

224 –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 정의구현

로컬 헬스케어 노조는 헬스케어 산업, 헬스케어 노동자 및 헬스케어 소비자가 직면한 중요 사안에 관한 일련의 결의문을 제출하였다.

미국의 헬스케어 체제는 중대한 변혁기를 겪고 있다. SEIU 회원들의 주장은 획기적인 진보를 이루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룩할 과업이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보험 개혁법은 이전에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2천만명에게 보험의 혜택을 확산시키는 패거리를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국인 이 나라의 3천만 인구가 아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은 일자리 증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해 왔으며 홈케어 등의 직종이 빠른 속도로 일자리 확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 노동자의 40%는 아직도 시급 \$15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고, 일자리의 과반수가 비노조직이며, 일선의 케어 제공자와 헬스케어 업계 총수와의 임금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시급 \$15 투쟁은 우리 나라들에 필요한 케어를 제공하는 모든 헬스케어 노동자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15 홈케어 투쟁으로 인해 홈케어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필요한 서비스 접근성의 부족이 전국적인 우선순위 사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장기 케어의 위기는 국가적인 최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장기 케어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노년층으로 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인해 가속화된 급여 개혁은 이 세대 중 최초로 총 헬스케어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켰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미국 근로자의 급여는 점점 인상되는 보험료와 코페이 지출에 사용되고 있고; 높은 공제액으로 인해 우리의 발전이 저해되며, 건강보험 혜택의 불균형을 악화시키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비용으로 인해 빚을 지거나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정 이니셔티브를 전환하는 것이 단지 아플 때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전 산업을 휘두르는 통합으로 인해 진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써 거대한 기업 – 및 “비영리 단체” – 를 탄생시키며 이들은 의료제공 체제를 점점 더 통제하고 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긴 수명을 누린 적은 이제껏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구조적 인종주의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미국 흑인 지역사회의 만성질환 발병율은 백인 집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처방 신약의 개발로 인해 수백만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많은 사람들은 그 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소아마비를 거의 근절하였고 다음은 말라리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인재에 해당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에볼라 및 지카 등의 새롭고 더욱 자주 등장하는 전 세계적인 건강의 위기가 빚어 졌다.

우리는 환자가 진료중에 얻은 질병에 대하여 마침내 병원에 그에 대한 처벌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환경 하에서 헬스케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상을 입고 – 때로는 사망하며 – 있는 바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빈도수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결의하는 바, SEIU 회원은 건강보험 개혁법에 근간한 새로운 헬스케어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불식시키기 위한 결의를 천명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 건강보험 개혁법에 근간한 질, 접근성 및 저렴성의 개선을 이룩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험혜택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다;

224 –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 정의구현

- 실질적인 진료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진정한 저가의 건강보험 혜택을 옹호함 – 고 공제액 보험에 대한 반대 운동 포함;
- 우리의 협상을 통하여, 주 및 연방 대 의회 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공공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소비자로서의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처방약 가격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저가의 의약품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함;
- 무보험자를 위한 안전망 체제에 대한 적절한 기금을 위하여 투쟁하며 이같은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문에 기금이 적절히 배당되도록 만전을 기함;
- 헬스케어 회원들이 가능한 경우 고용주와 협력하여, 또는 필요한 경우 그들 자체 노력으로 질 향상 부문에 활동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참여를 독려함;
- 보다 공정한 장기 케어를 위한 범 노조적 유대 및 결속을 구축하여 노년층 및 장애인이 자신들이 선택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범 노조적 건강 및 안전관련 회원 지도자를 양성하고, 모든 작업장 안전을 위해 이를 교육하고, 전염병, 직장내 폭력, 인체 공학 및 여타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한 법령 및 산업안전 보건청의 규정에 대한 연대 운동을 포함한 노력을 옹호함;
- 동반자 단체와 연대하여 국내외 보건 긴급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대응하며, 전세계에 걸친 헬스케어 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을 지지하며, 강력한 공중보건 체제 구축에 투자를 하도록 미국, 푸에르토 리코, 캐나다 및 국제 기구 등에 대한 로비활동을 전개함;
- 비노조 헬스케어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이들이 상기 과업을 위하여 우리와 연대하도록 함.